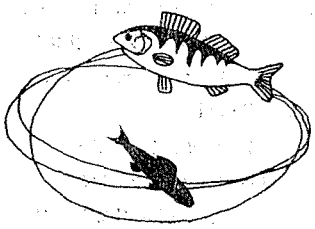
<時 論>



은어자원으로 외화를 획득하자

陸水学会長 崔 基 哲

은어(Plecoglossus altivelis Temmincky sit Schlegel)는 東洋特産種으로 中國 북건성, 대만, 한국, 일본에서만 産出되고 있으나 북건성의 生産量은 크지 못 하고 대만의 담수천에만 서식했던 자연생 은어는 극심한 水質汚染에 의해서 전멸했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가 되는것은 일본과 한국 뿐이다. 일본의 은어 생산량은 年産 10.000톤(자연산 8.000톤과 양식 2.000톤)정도이나 수질오염, 치어부족, 땜 건조 등에 의하여 매년 감소일로에 있어 급기야 한국에서 치어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육수학회에서는 지난 7월6일 부터 21일 까지 16일간 일본 은어생태 전문가인 京都大學 川那部 浩哉博士를 초빙하여 水産廳과 내수자원 개발 연구소의 후원으로, 영양 남대천, 웅천강, 남원 요천, 영덕 오십천, 밀양강, 제주도 강청천등을 집중하여 조사하였던 바 현재 우리나라의 은어 자원은 300톤으로 밝혀졌다. 한편 漢江과 錦江의 경우처럼 은어의 棲息條件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 현재는 은어가 棲息하지 않고 있는 곳을 널리 찾아내서 稚魚移植을 실시한다면 年産 1.000톤 生産은 可能하다고 생각한다. 3년이내에 年 1.000톤을 생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對策이 政策的으로 要求되는 바이다.

1) 보호구역의 확대 : 영덕 오십천의 경우,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고 은어의 보호를 기했던 것만으로 다른 지역의 5倍의 生産高를 올리는데 성공했다. 만일 다른 지역이 이에 따른다면 그것으로도 840톤의 생산은 간단히 이루어질 것이다.

2) 금엽기의 어로행위 엄단 : 6月 이전을 금엽기로 제정한 것은 바다로 부터 올라오는 稚魚를 保護하자는 것이고, 9—10월을 금렵기로 한 것은 산란을 하기위해서 降下 하는 成魚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렵기에 稚魚를 멸치 그물로 대량 포획해서 멸치처럼 말린 후 시장에 내는 일이 아직도 근절 되지 않고 있으며, 산란하기 위하여 降下하는 成魚를 그물이나 후리낚시로 남획하는 일이 아직도 盛行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당국은 이와 같은 불법어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3) 은어 채포에는 낚시만 허용 : 밀양강, 섬진강, 웅천강, 제주도 등지에서 성행되고 있는 유자망, 후리그물, 권망등의 사용은 은어를 남획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할 우려가 크므로 그것을 금지하고, 낚시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國內移植奬勵 : 現在 은어가 서식하고 있지 않는 하천 중에도 유리한 서식조건을 갖춘 곳이 적지 않다. 漢江과 錦江의 中上流地域, 땜호의 상부등, 우리는 全國的으로 많은 유휴수면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適地를 찾아내서 은어의 稚魚를 방류한다면 단시일내에 획기적인 증산이 가능할 것이다.

5) 보에는 魚道를 : 갈수기에 논에 물을 끌기 위해서 각 하천에 일시적인 보가 조성된다. 대부분이 높이 2m 미만이지만 은어는 이 때문에 소상이 방해되어 상류는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 위의 부착조류는 고스란히 남게 되고 보 밑은 은어의 밀도가 커서 식량부족을 일으키게된다. 이것은 은어 생산이란 입장에서 볼 때 큰 손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은어의 소상을 막는 보에는 반드시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철저한 기초 조사가 先行되어야 한다 : 증산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기초 조사가 先行되어야 한다.

첫째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은어의 現存量을 가급적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는 은어의 산란지를 전국적으로 빠짐없이 조사해서 정확한 산란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은어 서식이 가능한 유휴수 면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넷째는 하천 생태계에서의 은어의 生態的 地位를 밝혀야 한다. 특히 먹이 연쇄 관계와 경쟁자의 유무를 알아내야 한다.

이와같은 조사는 現在 수산진흥원의 기구(특히 담수구시험소)를 활용하고, 일부 전문 학자를 동원하면 가능할 것이다.